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473

JCCT 2024-9-57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일과운영경험과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

Suggestion for revising the play-centered early childhood curriculum Awareness of daycare center extended child care teacher's experience and play centered curriculum operation

지인숙*, 박지희**

Ji, In-Sook*, Park, Ji-Hee**

요약 본 연구는 연장반 전담교사들의 일과 운영 경험을 알아보고 연장 보육 전담교사의 놀이 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연구 참여자는 충청북도에 있는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연장반 전담교사 8명이며,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개인별 심층 면담을 2회씩 실시하여 자료수집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보육전담교사는 영유아 혼합반의 구성으로 영아와 유아의 놀이에 대한 요구가 다르므로 놀이 중심교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연장반 전담교사들은 연장반 교실에 부재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연장보육전담교사는 보조교사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넷째, 연장보육전담교사는 놀이중심교육을 수행하기에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위한 전담교실, 놀이중심교육을 위한 연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놀이중심교육과정, 일과운영경험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operational experience of teachers in the extended class and the difficulties of teachers in the extended class for the implementation of play-oriented education in the extended clas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 had a perception that the extended class teacher was an assistant teacher rather than a regular teacher. Second, since there is no separate classroom for extended classes, it helps teachers in charge of their absence rather than recognizing it as a sense of belonging and regular responsibility and cares for children without getting hurt. Third, teachers in the extended class put children's safety first with the care of mixed classes and the inconsistent return time of infants and toddlers. Fourth, most teachers were aware of the play-based curriculum and did not receive training, and most teachers said that it was impossible to implement the play-based curriculum in extended childcare. As a result, teachers in charge of the extended class need a guidebook for the extended class and an education and guidebook on the activity connection of the extended childcare class on what is the role of the teacher in charge of the extended class.

Key words : daycare center, extended child care teacher, play centered curriculum, experience curriculum operation

*정회원, 지예슬어린이집 원장 (제1저자)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7월 20일, 수정완료일: 2024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일

(본 연구는 한국교통대학교 2024년 석사학위논문들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

Received: July 20, 2024 / Revised: August 20, 2024

Accepted: September 1, 2024

**Corresponding Author: bakjihee@hanmail.net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I. 서론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 야간연장, 새벽 보육으로 개정하고, 이중 기본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규정하여 보육시간을 세분화하였다[1]. 이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시작되었다.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연장보육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1개소당 1명의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특수시책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제도의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업무경감, 업무집중과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에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으로 예전과 동일하게 두면서 기본보육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보육시간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개편하였다[1]. 이에 따라, 기본보육 담당교사는 8시간의 근무시간, 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연장보육전담교사는 3시간 30분의 담당 시간을 배정받게 되었다.

그동안 연장보육전담교사에 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2]. 연장보육전담교사의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소속감, 역할모호성 등을 보고한 연구가 수행되었다[4].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정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6]. 이를 통해,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업무가 불명확하며 안정적이지 않은 근무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장보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연장보육전담교사 관련 양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2-3]. 반면 연장보육전담교사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수행됐다[4-5]. 그동안 연장보육전담교사에 대해 살펴본 질적 연구들은 연장보육교사의 경험과 어려움에 관해 알아본 연구였으며 세부적인 연장보육의 일과 운영이나 교육과정에 집중하여 고찰하지 않았다.

연장보육제도와 전담교사의 경험을 알아보려면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을 참여자로 한 질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나아가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일

과 운영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일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은 일과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6].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일과 운영 경험을 살펴본 이후에 일과 운영을 개선할 방안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적용된 이후에 연장보육제도가 어린이집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장보육을 실천하는 연장보육전담교사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핵심적인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어떻게 연장보육반에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장보육반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면 향후 어린이집의 연장보육 교육과정 수립과 방향성 제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일과 운영 경험과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일과 운영 경험과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일과 운영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장보육전담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2년 보건복지부가 개편한 연장보육제도에 취지에 따라 현재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연구자가 맞춤형 보육의 짧은 체도를 개선한 연장보육제도로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과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고자 취지로 연장보육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충북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장반

전담교사 8명으로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법인의 연
 장보육전담교사를 참여자로 하였다.

국공립 3명, 직장 2명, 민간 3명 법인 1명 같은 기간
 의 연장반 교사의 배치가 다를 수 있어 같은 기관보다
 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설립 유형에 근무하는 연구참여
 자들을 선정하였다.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반 전
 담교사와 담임반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로
 구분되었고 경력의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연구참여자로
 참여한 연장보육전담교사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비슷
 한 집단을 선정하였다. 모든 연장보육전담교사와 그들
 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연구참여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절차

1) 예비 연구

2년 차 연장 반을 맡은 연장반 교사를 예비 연구자
 로 하였으며, 또한 시간 연장형 교사가 연장 반을 겸직
 하는 본원의 교사를 현장에서 영아반 전담교사와 유아
 반 전담교사로 구분 지어 1 : 1 면담을 50분 1회 진행하
 고 1개월 후 7월경 2회차 진행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연구 참
 여자와 논의 후 근무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대에 직접
 원으로 방문하여 한 명당 1회기의 면담을 40~1시간 진
 행하였다. 2회기 면담은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진행하고 원에서 면담하기를 원
 하는 연장보육전담교사는 각 원에서 진행하되 면담자
 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들이 모두 귀가하고 선생
 님이 편한 시간을 전달받아 방문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연장보육전담교사의 근무환경,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한 면담과 현재 진행되고 있
 는 놀이 중심의 실천 및 진행 과정을 심층 면담으로 1 :
 1 면담 2회를 진행하고 기관별 연장 반의 운영은 어떻
 게 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생각하는 놀이 중심과 연장
 반에서의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장보육전
 담교사를 하게 된 동기 등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이야기
 를 들어보았다.

놀이 중심에 대한 질문에 어려움이 있는 교사들에게
 는 1차 면담을 진행한 후 2차 면담 시 질문에 대해 당
 황하지 않도록 사전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1:1 면담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사는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
 에 답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표 1. 연구절차

Table 1. Research Procedure

본 연구	
2023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 섭외 • 연구 참여자 기관 방문 및 면담 환경 점검 • 면담에 대한 기관장 협조 요청 및 수락 얻음 •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내용 안내 및 연구동의서 받음
2023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 기관에서 1회차 면담 진행 (참여자 8명 에 대해 총 8회 면담 진행) • 연구문제 1번에 대한 질문 중심으로 면담 진행 • 면담에 대한 전사본 작성 및 연구자 반성적 저널 기록 • 진행된 면담에 대한 1차 코딩 실시 • 연구문제 1번에 대해 주제어 목록 작성
2023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참여자 2회차 면담 진행 (참여자 8명에 대해 총 8회 면담 진행) • 연구문제 2번에 대한 질문 중심으로 면담 진행 • 면담에 대한 전사본 작성 및 연구자 반성적 저널 기록 • 진행된 면담에 대한 1차 코딩 실시 • 연구문제 2번에 대해 주제어 목록 작성
2023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본 전체 재독을 통해 1, 2회기 면담 내용을 통 찰하고 누락된 의미 사항이 없는지 검토 • 주제어 목록 토대로 2차 코딩 실시, 범주어 생성 및 하위 주제어 도출

3. 자료수집

1) 심층면담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
 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개별 면담으로 진행하였
 다. 개별 면담은 연구 참여자 1인당 2회씩 실시하여 총
 16번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들
 이 요청하는 장소에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 시간은 코
 로나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비우거나 외부 접촉으로 인
 해 난처한 상호 아이 생기지 않고 최대한 연장반 선생
 님 아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와 일
 정을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협의를 통
 해 면담은 주로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근처
 커피숍이나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이

루어졌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이나 메일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초기 진행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목록을 사전에 안내하여 연구 참여자가 미리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총 16회기의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분량은 A4 130페이지였다.

연구자는 반 구조화된 질문을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여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때 바로 추가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 일정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
Table 2. In-depth interview schedule and content

회기	연구 참여자	형태	소요 시간	연장 교사 경력	내용
1차	A 교사	직장	평균 60분	2년 미만	-연장반을 운영하면서 처하는 어려움 -연장반을 운영하면서 얻는 보람 -연장반의 일과 -연장반 전담교사의 직무 범위
	B 교사	민간		3년 미만	
	C 교사	민간		3년미만	
	D 교사	민간		1년	
	E 교사	법인		3년이상	
	F 교사	국공립		1년 미만	
	G 교사	국공립		2년	
	H 교사	국공립		3년미만	
2차	A 교사	직장	평균 60분	2년 미만	-연장반 놀이중심교육과정용 만들려는 지원방안/ 실천방안 -혼합연령을 위한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위한 방법 -놀이중심교육과정 수행 운영 경험 -문제상황 해결방법/ 사례
	B 교사	민간		3년 미만	
	C 교사	민간		3년미만	
	D 교사	민간		1년	
	E 교사	법인		3년이상	
	F 교사	국공립		1년 미만	
	G 교사	국공립		2년	
	H 교사	국공립		3년미만	

2)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 연구 주제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며,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총 2편을 전사하여 8페이지 정도 되고 생각의 관점이 다른 참여자들을 위한 반성적 저널을 기록하였다.

3) 현지 자료수집

보조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연장 교사 연장 보육 연간계획안, 월간계획안, 주간계획안, 일일 보육일지, 연장 보육일지, 교직원 회의록(담임교사, 연장 교사 모두 참석), 연장반 원아 현황판, 연장반 이용원아 출석부, 등하원일지, 연장 보육 수요조사 및 예 상하원시간 조사 결과, 보육 교직원 직접지급 사업안내(처우 개선비, 각종 수당 등), 보육 교직원 휴게 시간표, 보육 교직원 출퇴근 휴게사용 기록부(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서명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의 문서들을 교사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연장반 보육일지 및 전달메모장 등은 있었지만 그 외의 연간계획안, 월간계획안 등 연장 반의 운영 관련 서류는 갖춰지지 않았으며 연장보육전담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진으로 찍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4. 자료분석

방문면담을 위해 핸드폰에 인터뷰 어플을 깔아 교사가 현장에서 한 이야기를 최대한 놓치지 않기 위해 내용을 전사하였다. 우선 심층 면담으로 수집된 녹음자료를 전사한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며,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의미가 잘 드러나 있는 문장에 줄을 긋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차 코딩을 통해 주요 주제어와 하위범주를 생성할 것이며, 2차 코딩을 통해 새로운 코드와 범주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연장보육전담교사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질적 연구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질적 자료 분석의 가장 중점이 되는 전사 작업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노트, 면담 녹취자료, 현장자료를 상세히 기록 및 저장하는 과정을 가졌다.

주된 자료수집방법이 심층면담,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 현지 자료수집이었다. 3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여 자료수집을 삼각검증하였다. 이 3가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주로 심층면담자료를 분석하고,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은 심층면담자료를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지자료는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조적인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연장반은 정규반처럼 놀이중심과 일과에 대한 상세한 일지를 작성하지 않기에 연장 반의 일지는 필수로 요구하지 않았고, 연장 보육 체계 도입에서부터 연장반에서의 다양한 연령대로 인한 것과 연장반만을 위한 교실 배정이 없이 현관과 가까운 교실에서 자유 놀이 운영으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는 두 번의 면담 회기를 가졌다. 첫 번째 회에서는 각 교사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인식과 근무환경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였다. 연장반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 회기에서는 연장반에서의 놀이중심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는지 놀이중심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었다. 또 아이들과 기억에 남는 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놀이 중심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던 교사에게는 면담지를 보여주며 연장반 교사가 평소 아이들과 함께 놀이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 회기에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교사가 면담에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일과 운영 경험

1) 연장보육전담교사의 보람

(1) 연장반이 제공하는 교사의 즐거움

연장반 전담교사들은 오전 보조교사와 겸직하는 교사들과 연장 반만을 근무하는 교사로 구분되었으며 연장 반을 맡으면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4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만족하고 있었다. 동료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담임교사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지만, 아이들과의 일과에 즐거움을 느끼고 짧은 근무시간이 일에 대한 부담감과 자유 놀이로 수업 준비가 없는 것에 매우 만족하였다.

아이들과 말이 통하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 보육 교사 일이 재미가 생겨서 누리반 아이들의 정규반 선생님을 해볼까 생각도 들었어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

(2023. 09. 04. F 교사)

딱히 진짜 시작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크게 이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해볼까 이러는 마음들이 더 컸어요. 이거 준비할 때도 내가 이것을 할 목적으로는 없었는데 아이들이 하면 할수록 너무 이쁜 거예요.

(2023. 09. 20. 교사)

(2) 연장보육전담교사로서의 보람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은 연장반 제도에 의한 온종일 담임교사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지원하여 업무적 스트레스와 부모님과 대면하는 어려움을 벗어나 보조교사라는 인식보다는 편안하게 근무하면서 조금씩 아이들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제가 이제 3시에 출근하잖아요. 정말 연장반 아이들은 이제 곳곳에 반마다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연장반 아이들은 저를 이제 더 반갑게 맞아주고 와서 안아주고 뛰어와서 안겨요.

(2023. 10. 29. E 교사)

4살 때 되게 많이 교실에서 울던 아이가 있었어요. 3월에 딱 첫날 연장 반에 오자마자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가 와서 적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적응하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2023. 10. 24. H 교사)

기관의 상황에 따라 연장반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눠서 보육하는 원이 있는 반면 영유아가 혼합인 기관이 있다. 이는 지자체 행정기관에서의 교사 배치에 차이가 있기에 연장 반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애로사항이 많다. 연장 반이 혼합으로 1명인 경우 정규반 선생님이 남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나 원장이나 선임교사들이 남아서 아이들이 몇 명 남아 있지 않았을 시 퇴근을 해야 한다.

특히 연장반이 한 반으로 구성된 원에서는 연장전담교사는 새 학기 연장 반에 아이들의 적응을 미리 걱정하고 있고, 매일 보던 영유아들이지만 영아반에서 유아 연장 반에서의 적응 기간을 두려워하고 있다.

2)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어려움

(1) 정규담임으로서의 인식 부재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환경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높고 4시~6시까지 영유아의 하원과 정규반 선생님들의 차량으로 교실 공백의 보육을 전담하고, 연장반 교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규반 선생님들뿐 아니라 연장반 교사들도 담임교사라고는 인식하나 정규반 담임보다 부모님과의 대면과 서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보았다. 연장반 교사들의 연령대도 다양했으나 40대에서 50대의 교사들이 4시간 짧게 일하며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스트레스받지 않으며 일하는 것으로 선호하였다.

키즈노트를 쓴다던가 활동자료 집을 만들거나 이런 업무가 없다는 게 연장 반의 매력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중일반을 했겠죠. 부담감 없이 일할 수 있어 연장 반을 하게 된 겁니다.

(2023. 10. 4 H 교사)

연장반에서 놀이 중심교육과정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가 1명인 곳은 모든 연령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는데 애들까지 놀다가 바로바로 부모님 오시면 가고 한두 명 남은 아이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엄마가 기다려지겠어요.

(2023. 09. 14 F 교사)

(2) 다수 기본보육교사에 비해 소수자로서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어려움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은 각원의 저녁 시간 정규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퇴근하고 혼자 남아 보육하는 교사들이 많았으며 그 시간 혼합연령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놀이의 크기가 다르기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놀이를 함께 하기보다는 다치지 않게 잘 보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동료 교사가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모두가 퇴근하고 혼자 연장 반을 보육할 때는 더 많은 불안감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저 말고 또 한 명의 연장반 교사가 있다면 영아반과 유아반 선생님이 좀 계시면 제가 선생님들 보통 6시에는 다 퇴근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6시에서 7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제가 혼자 있는데 외롭다기보다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좀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

(2023. 9. 21. F 교사)

저희 원은 아이들이 거의 영아잖아요. 그런데 큰아이들 같은 경우 협동으로 놀이할 수 있잖아요. 그 놀이하면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면 더 재밌겠다 하는데 영아들은 말도 더 많이 해줘야 하고 또 놀이가 거의 다르므로 이 아이 해주죠 저 아이 해주고 이렇게 다르게 해줘야 해서 어려운 그것 같아요.

(2023. 10. 13. E 교사)

(3) 연장보육전담교사의 하루일과의 불명확함

연장반 교사의 근무시간은 출근 시간은 3시부터 19시 30분까지이다. 연장반을 하면서 오전 누리 보조나 영아 보조처럼 겸직하는 교사들도 있었으며 3시 이후의 일과는 기관별 차이점은 보이지만 업무배치는 연장 보육 전 같이 오후 간식판 정리하기, 차량으로 담임교사가 비어있는 교실 아이들 돌보기, 정규반 선생님 휴식 시간, 공백을 지정된 교실이 아닌 원내의 모든 교실에 지원하고 있었다.

선생님들 휴식시간에 나가실 때 필요한 교실 들어가서 도와 드리다가 한 3시부터 4시 사이에는 정규반 선생님들 부탁하시는 일이 있으면 수업 준비하시는 거 도와 드리고 4시부터 들어서 1시간 보육하고 간식 먹고 놀이하다가 한 6시부터 아이들이 인 것 시작하는 것 같아요.

(2023. 09. 06. A 교사)

일과가 이제 3시에 오면은 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 있고 반도 있고. 2층에 간식 그릇 다 갖다 놓으시면 제가 3층 주방에 갖다 놓고 우유 같은 거 모아가지고 쟁반이 다 모이면 우유갑 정리하고... 하원 시간에 이제 그 선생님이 교실 비우잖아요. 그 반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5시부터는 연장만 한 곳에 모여서 그때 아이들을 보고...

(2023. 9. 27. B 교사)

(4) 동료교사와 관계 설정위해 애쓰기

연장반 교사들은 출근 시간의 차이로 정규반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나 유대관계를 얻고 있지만 19시 30분의 늦은 퇴근 시간으로 어울리거나 저녁 시간 교육, 회의, 회식 등 동료 교사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이 적으며, 바쁜 시간 정규반 선생님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있으면서도 연장반 담임이라는 개념보다는 보조교사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담임교사와 유아에 대한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인수인계 부분에서 민감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가 인수인계해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인수인계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먼저 전달사항이나 특이 사항을 확인하고 연장반 교실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3. 09. 07. G 교사)

저희 원은 연장반 교사가 많아서 연장 반 교사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좋아요. 정규반 담임선생님들이 저희 원은 좀 젊은 편이라서 나이가 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도와 드릴까요?' 하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2023. 09. 21 C 교사)

(5) 막막한 혼합연령반 운영

연장반이 시행되며 정착기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연장반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은 예산에 어린이집에서 연장반 교사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배정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연장 반을 이용하는 원아의 수가 많지만, 현장에 현실은 부족한 연장반 교사로 정규반 교사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연장 반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장반 인원수에 따라 혼합이 되기도 한다. 영아반은 1 : 5로 구성되며, 만 0세 아동이 연장 반 일 경우에는 1 : 3으로 편성된다. 유아들은 1 : 15로 만

3세부터 만 5세 아이들이 혼합으로 구성된다.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아이들도 귀가가 많이 하는데 혼자 보기가 힘들고 원에서 회의라도 있으면 3시 30분에서 4시에도 연장반 교사가 혼자 아이들을 봐야 하는데 2층에는 3세 반도 있는데 그 아이들까지 보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귀가가 많이 하는데 혼자 보기가...

(2023. 9. 27 B 교사)

연장반은 아무래도 혼합반이다 보니까 안전을 가장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때 담임선생님께 전달할 때도 있지만, 부모님께 전달하면 연장반 선생님보다 믿음이 덜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2023. 09. 06. A 교사)

2. 연장보육전담교사의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실제

1) 자유놀이를 통한 놀이중심교육의 실천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강조하며 유아의 “놀이에 귀를 기울여”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을 유아의 놀이를 보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이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적 의도와 사전 놀이 계획을 강조한 것(교육과학기술부, 2013)과 달리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계획과 지원에 앞서 놀이에 귀 기울여 놀이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것을 강조한다.

우선 유아에 관한 관심이 무엇인지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장반이 시작되고 곧이어서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아이들이 하원을 하여서 교사가 놀이하는 아이들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아이들이 영역에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영역마다 흥미로운 활동을 준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023. 09. 08. G 교사)

아이들은 많고 교실은 적는데 통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귀가 시간이 모두 다르기에 바깥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이를 해요, 오전처럼 놀이 중심을 하면서 뭔가 해주기보다는 안전하게 오후에는 좀 쉬기도 하고 편안하게 놀다가 안전하게 인수인계가 중요하지요.

(2023. 10. 11. E 교사)

2) 놀이중심교육과정은 오전 활동의 연계

연장반에 이동하면서 혼합연령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연장반 전담교사들은 종일 아이들이 교실에서의 놀이에 오후 연장 반에서도 놀이 관찰 및 놀이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좁은 공간에서의 보육과 다양한 나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 놀이의 중요성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혼자 혼합 나이를 보육하는 연장반 전담교사의 경우 개월 수 차이가 크게 나는 영아의 경우 귀가지도 시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놀이가 이제 중복되면 너무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것을 선정하거나 자료 신청하는 거가 조금 어려웠고 또 이제 담임선생님들은 일정 시간이 되시면 나가셔서 따로 놀이 지원 시간 가지고 원장님한테 확인받고 하시는데 저희는 따로 그런 시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담임선생님처럼 깊게 놀이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3. 09. 12. A 교사)

4시에 연장반으로 이동후 1시간 전후 놀이하면서 또 정리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고 와서 또 조금 놀이하려고 하다 보면 하원해야 하고 하나까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또 많아서 그런 점도 놀이 지원이 어렵고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할 때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2023. 09. 20. A 교사)

3) 연장반 운영사례 및 기본반 연계의 필요성

유아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며 즐겁게 배우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은 4시 30분에서 각반의 연장반 아이들이 연장 반으로 이동하여 우선 자유롭게 놀이 및 휴식을 생각하고 있으며, 정규담임 교사와의 소통보다는 아이들이 오전 시간 아프거나 다친 상황, 당일 아이들의 몸 상태 등 업무에 가장 기본적인 아이들의 건강상태나 연장 반 시간에 연장반 교사에게 인수인계 과정으로 간단한 전달을 받을 뿐 오전 놀이 활동이나 일과에 대한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장 반 교사들의 정확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알고 있는 연장반 전담교사들은 없었다. 또한, 혼합연령의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보육하다 보니 놀이중심교육보다는 교사가 놀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담임교사랑 연계해서 이제 놀이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런 사례나 교육 같은 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겹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놀이를 지원할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연장반 시간에 혼합 나이를 보육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동적인 놀이를 자제하게 되어 아이들에게 앉아서 놀이하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또 다른 반에 오면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2023. 09. 24. A 교사)

근데 사실은 놀이 중심이 어려운 점이 아이들이 피곤해하거나 쉬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와서 그 시간이면 얼마나 졸렸겠어요. 온종일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023. 10. 29. B 교사)

연장반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종일 어린이집에서 돌봄과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이 연장반 운영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전 활동으로 아이들은 많이 피곤해하고 집단규칙에 맞게 어울려 생활하는 개인의 감정과 요구를 가정처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들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다 보니, 연장반 보육시간만큼은 편안히 쉬 수 있는 연장반에서라도 제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우선 교육 같은 것도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담임선생님들은 이제 원장님한테 따로 그렇게 자주 확인도 받으시고 교육도 이제 오전 저녁 시간쯤에 이제 교육 부분이 좀 잘 됐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2023. 9. 14. A 교사)

오랫동안 있고 아침 일찍 와서 꼭 여기를 얘기해야 혼자 남아 있거나 둘이 남아있거나 그래서 다 갔는데 늦게 남아있는 것도 좀 속상한데 이제 엄마도 보고 싶고 엄마 찾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보면 좀 힘들고 연령 차이가 있으면 누구한테 맞춰서 놀아주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2023. 10. 10. E 교사)

4)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1) 불규칙한 하원시간

연장보육은 정규반 교사의 퇴근으로 기본보육 시간보다 확연히 적은 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 점에서 안전에 취약하다. 연장반 교사의 수와도 많은 영향이 있듯 대부분의 보육 시설에서는 5시 이후 연장반 교사가 혼자 보육과 귀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많을 그뿐만 아니라 혼합연령의 보육으로 교실 내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다.

제가 연장반에서 교사 중심적 놀이를 더 많이 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귀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가자고 좀 이렇게 놀이가 끈기잖아요. 열심히 놀아주고 있는데 벨 소리가 들리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다 따라 나와요. 엄마 온 줄 알고 그러면서 한 명 보내면 교실에 다시 왔을 때는 아이들은 그 놀이를 계속하지 않고 다른 놀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놀이 중심 확장 놀이 연 게 놀이가 되지 않고 또 자기 엄마 아니라고 가방 메고 나갔는데, 그러면 또 그 아이 달려야 하니 아이들과 놀이 중심보다는 색칠공부 스티커 붙이기 등등

(2023. 10. 13. E 교사)

네 그래서 아이들 관심을 참고해서 흥미를 보고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하원 시간 때문에 놀이를 같이하다가 계속 끊기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지원하다가

이제 흐름이 계속 끊기더라고요.

(2023. 9. 20. A 교사)

(2) 연령별 수준을 반영한 교육이 어려움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은 연장보육 전담교실이 마련되지 않은 보육현장에서 기본보육 반과 보육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있었고, 기본보육반의 놀이가 정돈되지 않았음에도 시간이 되면 연장 보육이 시작되다 보니 연장 보육 아동들의 놀이자료 준비에도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 보니 반을 이동하여 보육 시 놀이가 방해되고 있다.

혼합연령은 걱정했는데 같은 연령끼리 있으면 다툼도 많고 좀 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형님들하고 있으면 뭔가 좀 더 의젓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 같고 서로 생각보다는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해요.

(2023. 09. 12 A 교사)

유아의 놀이 요구가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아 아이는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다른 아이는 또 다른 놀이하고 싶어 하는 요구할 때 다 존중해 주기 어려울 때가 간혹 있잖아요. 이제 놀이에서 또 이렇게 약간의 소외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또 감싸 안고 놀이에 참여시키고 그래야 하는 부분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23. 10. 29. B 교사)

(3) 연장반 교실의 부재

연구에 참여한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의 기관에서는 연장 보육 전담 교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기본보육반의 보육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영유아의 활동에 제한을 주게 되고 놀이자료의 구비에도 제한이 있었다. 온종일 놀이 활동에 참여한 영유아들은 오후 연장반에서는 휴식과 놀이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개별적으로 귀가 전까지 자유롭게 독립적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아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한 놀이 공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교실을 주마다 돌아가면서 보육을 했어요. 교실 청소를 해야 하니까 청소하는 시간에는 다른 반으로 잠깐 이동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식으로 했다가 이제 매주 반을 이동하는 식으로 보육을 했어요.

(2023. 09. 14. G 교사)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다른 교실로 바뀌니까 환경에 따라서 또 새로운 거부감도 있고 신체활동을 하기에는 작은 교실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죠. 아이들이 그렇다고 체력적으로 신체 놀이를 크게 해서 대근육, 소근육 놀이를 하기는 주로 많이 안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부딪힐까 봐 다칠까 봐 걱정되니까 어려움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 같아요.

(2023. 10. 29. C 교사)

IV. 논 의

연장보육전담교사와 일과운영과 놀이중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 보육 특성상 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고 교사 대 아동 정원을 준수하여 배정하였으나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4시 30분 전에 0~만 2세는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보육이 진행되기도 하고 별도의 연장반 전용 보육실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기존 보육반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다 보니 교실의 물건이나 놀잇감 등 영유아가 놀이하다 파손되거나 교실 정리를 하지만 담임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있다. 아이들의 개개인 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연령이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 개월 수의 차이의 폭이 크므로 영아들은 유아들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연장반 보육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불안감을 이야기하였다. 영유아는 직접 안전사고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고 안전사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장애로 연결될 위험까지 가지고 있다[9]. 어린이집 교사들은 안전 교육 실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0-11]. 어린이집 기본보육반 교사들도 안전교육에 대해 취약하며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은 훨씬 더 안전교육 실천에 대한 지원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은 정규반 선생님과 다른 보조교사라는 인식하고 있다. 출근하여 각반 간식 배식 후 정리정돈, 차량가는 반의 지원 등 지정된 반이 아닌 다른 반의 지원을 하고 있었고 담임수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규반 교사들보다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으로 놀이 중심보다는 자유 놀이와 귀가지도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정규반 교사들이 퇴근하면서 영아와 유아가 혼합되어 보육이 이루어져 놀이 중심이 불가능하며 정적인 활동으로 다양한 놀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마다 연장보육전담교사의 배정 수가 적어 혼자 연장반을 맡는 원의 사정은 원아들의 귀가 시간이 다르다 보니 놀이하다가도 벨 소리가 울리면 교실을 비우고 귀가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연령별 연장보육전담교사가 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이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6]. 하지만, 연장보육전담교사의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원은 빈약하다. 연장보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연장보육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12].

셋째,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교사가 대부분이었으며 늦은 시간 귀가로 인해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연령에 따라 관심도가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젊은 20대 교사는 교육을 받고 싶어 스스로 사이트를 찾아 온라인 교육을 찾아서 듣기도 한다고 하였으나 30, 40대 교사들은 업무가 많아지거나 교육이 많다면 연장 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연장보육반 운영에서 충분한 교육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12].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니,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4].

본 연구는 연장보육반을 맡은 8명의 영유아 연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현장에서의 연장 보육 운영의 실질적인 교사 업무를 알아본 결과 연장 보육교사의 다양한 업무와 부족한 연장반 교사의 배정으로 인한 아이들의 안정은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연장반의 놀이 중심과정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혼합 연령을 통한 보육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4시부터 연장반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많으며 영유아의 개별 귀가로 인해 놀이중심교육은 현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장보육전담교사들에 대한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의 활동 연계 사례에 대한 교육 및 지도서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장보육전담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근무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7-8].

넷째, 어린이집 연장보육에 해당하는 것이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이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유보통합 이후 통합모델이 적용될 때 바람직한 방과후 및 연장보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대비되는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었다. 앞으로 유보통합에 따라 통합모델이 적용되는만큼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에 대한 분석도 병행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양적연구로 더 명확한 자료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기록에 기초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에 어렵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통합 이후 도입될 통합모델에서의 방과후과정과 연장보육을 합친 형태의 연장보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장보육전담교사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유희교실을 활용한 연장보육반 운영사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장보육반을 유희교실에서 활용할 방안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논의된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장보육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정규반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연장보육 전담 교사들은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담임교사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조교사로 인식되어 있다.

연장보육전담교사도 정규담임 교사와 같이 담임교사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장반의 단일 연령 구성을 하여 더욱 많은 연장보육전담교사가 배치되길 기대한다.

둘째, 연장반 전담 교실을 마련하여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소속감을 느껴 '내 교실, 내 반'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정규 반의 교실에서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아이들과 마음껏 놀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진다면 놀이 중심교육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바꿔 표준보육 과정의 영아 연장반과 개정 누리과정의 연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의 교육 및 어린이집에서 선임이나 원장은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을 채용하여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사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연장전담교실을 확보하고 연장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연장보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기본보육반에서 놀이하던 것을 연장보육시간에서 확장해서 놀이하고 싶어한다. 기본보육반과 연장보육반의 교실이 서로 달라 아이들의 놀이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연장보육전담교사들도 오전 활동에 대한 인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여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약간의 휴식과 간식판 정리 같은 사소한 업무와 정규반 교사의 공백 부분을 채워주는 주된 업무를 맡고 있다. 연장보육전담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안전하게 놀이하다 귀가하는 것을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들이 정규담임 교사와 서로 소통하게 된다면 연장반 놀이시간에도 영유아들의 놀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 to reforming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 [2] R. Kang, Y.J. Jang.,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ing Environment, Childcare Efficacy, Burnout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of Childcare Teachers: Focusing on Break Time and the Presence of the Extended Teache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5, No. 6, pp. 33-52, 2021.
- [3] S.H. Koo, *A survey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teachers*.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9.
- [4] D.H. Ryou, *A Study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Extended Childcare': Focusing on homeroom childcare teachers and extended childcare teachers*,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2021.
- [5] J.H. Lee, *The Task and Role of Extension Class Teacher in Childcare Center: Based on interviews with extension class teacher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2021.
- [6] E.M. Kim, Y.Y. Je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xtended daycare system and the perceptions and demands of the directors and extended daycare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41, No. 3, 359-386, 2021.
- [7] M.J. Koh, *Childcare Center Directors' Experiences and Demands for Extended Infant Daycare*, Master's thesis, Seongshin Women University, 2021.
- [8] M.S. Song,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Extended Childcare System on Job Satisfaction and Efficacy of Childcare Teachers*, Dissertation, Jungbu University, 2022.
- [9] Singh, G. K., & Kogan, M. D. Widening

-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US childhoo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7, No. 9, pp. 1658-1665, 2007.
- [10]S.Y. Lee., S.J. Kwak., S.Y. Kim., & S.K. Roh., Inquiry into Safety Education for Infant in Daycare Center, and Teacher's Hardships and Request,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10, No. 1, pp. 313-338, 2018.
- [11]J.H. Bae., S.K. K.S. Kwon., S. I. Yi., & M.S. Yi., Early childhood teachers'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safety education in kindergart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5, No. 4, pp. 223-248, 2015.
- [12]N.S. Lee., & M.J. Lim.,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oddler Teachers in Charge of Extended Child 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5, No. 5, pp. 5-30, 2021.